

# 도선풍수의 맥 '땅=사람'

### 최원석씨 '도선국사 따라 걷는 우리땅 풍수기행'

여주 신록사 탐은 왜 강가에 서 있을까. 서울 호암사라는 절 이름에 '호(虎) 자가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 가야 땅의 산과 절 이름에 '어(魚) 자가 왜 유난히 많을까.

<도선 국사 따라 걷는 우리 땅 풍수기행>(시공사)은 이러한 의문을 풀어주면서 자연의 공간과 삶을 조망한 책이다. 최원석 씨가 풍수를 테마로 전국 사찰과 유적을 찾아다니며 도선 스님의 풍수사상과 사찰의 연관성을 파헤친 여행기이다.



여주 신록사 탐 강가에 선 이유

사람'이라는 말로 귀결된다. 땅도 사람처럼 좋지 않은 기운이 있는 곳, 그리고 아픈 곳이 있다. 도선 스님은 이런 곳에 절을 짓고 탑을 세워 그 땅을 치료하고자 했다. 그래서 거센 호랑이 산세를 제압하기 위해 호암사라는 절이 세워졌고, 날뛰는 용과 말에 글레를 씌우기 위해 여주 신록사의 전탑은 대웅전에서 멀리 떨어진 강가에 자리잡



성품임을 잘 보여 준다. 산, 바위, 절, 탑의 조화에서 결합 있는 땅조차 불력으로 살기 좋은 터전(명당)을 만들어 냈던 도선 스님의 풍수사상을 엿볼 수 있다.

2부 '도선의 풍수와 비보사탐'에 관한 이해에는 비보사탐에 관련된 논문이 실려 있다. 도선 스님의 풍수사상을 보다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 문헌상의 출처를 일일이 살펴보고 비보사탐의 현장을 도표로 정리했다.

이 책은 도선 스님의 발자취를 찾아가며 우리 땅을 보는 바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국토산천도 성불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명당을 만들려 했던 도선 스님, 그가 땅을 보살핀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자. 값 9천8백원.

김종근 기자(gamja@buddhania.com)

### 여주 신록사 탐 강가에 선 이유

### '虎' 자 절이름 호랑이 산세 제압

게 됐다. 또 달아나려는 개의 형상을 한 산세를 눌러 앉히기 위해 경북 청도에는 락절이 있다. 이것이 바로 '비보(禱補)', 도와서 모자람을 채워 주는 것이다. 즉 자연에 기대어 기성하려는 인간이 아니라 아픈 땅을 돌보고 치유해서 끌어안으려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바로 '도선 풍수'인 것이다.

이 책의 1부 '도선의 국토산천과 산천비보'는 도선 풍수의 현장 39곳을 둘러보고 쓴 것이다. 탐이나 절의 생김새를 살펴기보다는 멀리서 가까이서 바라본 산과 절, 탑의 지리학적 입지의 의미를 논하고 있다. 말 그대로 봉황이 머리를 드는 형국의 산세, 용트림하며 뱀은 산등성이, 연꽃 모양으로 솟은 산봉우리들의 모습이 맑고 고운 우리 땅의

김종근 기자(gamja@buddhania.com)

## 미국인 수도승이 쓴 티베트 불교의 지혜 '내마음 속 부처깨우기'



티베트 불교의 지혜를 알기 쉽게 소개한 <내 마음 속 부처 깨우기>(참작시대)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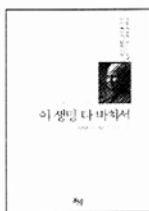
글쓴이는 티베트 라마 사원에서 30년 간 수행한 미국인 수도승 라마 수르야다스. 광범한 대학생이었던 그는 자신과 이름이 같은 사람이 죽음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존재'에 의문을 품고 진리를 찾기 위한 여행을 떠난다. 그리스와 이란, 인도를 거쳐 티베트 라마 사원에 도착, 티베트 불교의 지혜를 섭렵한다. 이 책은 그 과정에서 글쓴이가 얻고 깨달은 지혜와 각성의 기록이다. 그것은 교리나 계파의 틀 속에 구속되지 않은 살아 있는 지혜이며 깨어있는 진리이다.

글쓴이는 이 책에서 진리를 깨우쳐 부처가 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님을 강조한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미 부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곧 깨달음이라는 것이다. 또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방법으로 '지금 여기'를 강조한다. 즉 생활 속에서 깨달음의 단초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당신의 마음 속에 들어 있는 부처를 깨워라', '지금 여기에 깨달음이 있다'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값 9천원.

김종근 기자

## 서양 첫 비구니스님 '이 생명 다 바쳐서'



남방불교 최초의 서양 비구니 스님 아야 케마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담은 <이 생명 다 바쳐서>(장승)가 우리 말로 출간됐다.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 아야 케마(1923~1997). 그는 히틀러의 등장으로 가정과 조국을 등진 뒤 50여 년 동안 영국, 중국, 미국 등 10여개 나라를 떠돌며 전경교인, 빈민가의 처녀, 은행원, 주부, 여평가, 목장 주인 등 다양한 삶을 경험한다.

유난히 굴곡이 심했던 그의 인생역정은 자연스럽게 인간의 영혼문제에 관심을 갖게 했다. 그는 고통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행자의 길을 선택한다. 58세에 출가한 그는 그 동안의 삶을 내면을 향해 가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말한다. 그러한 삶을 통해 '살아지는 삶'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스스로를 변화시켰던 것이다.

이 책에서 글쓴이는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 왔으며, 눈앞에 닥쳐온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헤쳐왔는지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구도와 명상으로 이어진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털어놓는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을 읽는 때력이다. 값 7천5백원.

김종근 기자

## 근현대 선승 33인과 대화



### 이학종씨 '선을 찾아서'

선승과의 만남을 통해 선의 참뜻이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선승 33인의 구도기 <선을 찾아서>(민음사)가 출간됐다. 이 책은 한 세대쯤 앞선 시대, 또는 우리의 같은 시대를 살다간 선지식들이 설한 삶의 지혜로 가득하다. 한국 근대불교를 일으킨 경허 스님을 시작으로 <님의 침묵>의 만해 스님, 하심행(下心行)으로

### 경허·효봉·만해스님

### 오도송 구도기 등 담아

일관한 고암 스님, 일제치하에서 관사의 옷을 벗어 던지고 선승의 길을 걸었던 효봉 스님, 그리고 현존하는 서승 스님 등의 삶과 수행과정, 그리고 사상이 그대로 녹아 있다. 특히 선을 통해 일대사를 해결했던 이들이 들려주는 깨달음의 노래(悟道頌)와 열반송(涅槃頌), 그리고 여러 계승들은 선의 세계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한다.

(涅槃頌), 그리고 여러 계승들은 선의 세계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한다.

이학종 법보신문 편집부장이 쓴 이 책은 20세기를 살다간 우리 나라 대표적 선승들의 수행과정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삶이 주는 가치와 독특한 교훈들을 일러주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100년은 결코 녹록치 않았던 세기였다. 그 격동의 시절을 명철한 지혜로 헤쳐 나갔던 선승들이 보여준 삶의 궤적들은 참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등대 역할에 부족함이 없다. 값 1만5천원.

김종근 기자

### 내 마음의 풍경



### 더불어 사는 삶 선한 마음 실천

### 헤인스님 수필집 '내마음의 풍경'

25년 동안 미국 시카고에서 포교를 하다 8년 전 귀국한 헤인 스님(불심사 주지)이 수필집 <내 마음의 풍경>(나무심는사람)을 내놓았다.

"삶이 아름다운 것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글쓴이의 말처럼 이 책은 삶의 진정한 가치가 더불어 사는 생활 속에 있음을 알리고 있다.

우리는 수많은 업을 짓고 살고 있다. 그것들은 대부분 알면서 짓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면 그것을 끊는 방법이 없을까. 스님은 '선한 마음의 실천'이 업의 사슬을 끊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한다. 또 스님은 수행하는 마음도 선한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자신뿐 아니라 남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종교의 위대성이 있다는 게 스님의 해석이다.

이 책 속에 담긴 이야기들은 나는 누구인지,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돌이켜 보게 한다. 값 6천5백원.

김종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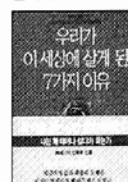
### 새로운 책



▲지대방 이야기(송광사 강원 펴냄, 법공양)= 송광사 강원에서 발간하고 있는 소식지 '정혜사'에 실렸던 학인 스님들의 글 가운데 맑은 이야기만을 간추려 엮은 책이다. 송광사 강원 일화라 할 수 있는 이 책은, 강원도의 일상이 소탈하게 담겨져 있다. 그 속에는 세상과 승가 속에서 스스로 본분사를 지키려는 학인 스님들의 신심과 깨달음을 향한 구도열이 녹아 있다. 값 7천원.



▲한국의 박물관 3(한국박물관연구원 펴냄, 문예마당)= 전 20권으로 기획된 '한국의 박물관' 시리즈 세 번째 목차 박물관·통도사편. 경기도 이천 목아박물관 소장품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 대웅전, 일주문, 괴불, 석탑과 같은 박물관에서 전시하기 어려운 문화재들은 통도사에서 통해 조망하고 있다. 유래에서부터 세부 명칭에 이르기까지 여러 불교조형물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박물관을 견학하지 않고서도 불교문화의 진수를 현장감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시리즈의 기획의도이다. 값 1만5천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위해 7가지 이유(다카하시 신지 지음, 김해석 옮김, 해누리)= 30년간 신과 영혼문제에 천착, 20세기 신학적 논쟁을 다룬다. '나는 왜 태어나 살다가 죽는가'라는 인간의 탄생과 삶, 그리고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밝히고 있다. 목장배 동국대 교수는 "이 책을 읽지 않고는 영혼문제를 거론할 수 없을 만큼 압권이다"고 평했다. 값 9천원.



▲마하르쉬의 복음(슈리 라마나스라마쉬, 대성 옮김, 탐구사)= 슈리 라마나 마라쉬는 20세기 전반에 남인도의 성산 라루나칼라에 살았던 수행자이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가장 보편적인 화두를 인류에게 제시한 그는 자기탐구를 통해 우리가 자신의 참된 성품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그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한 것을 간추려 엮은 것이다. 값 6천원.



▲사팔이,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김나미 지음, 현암사)=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광범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눈앞의 일에만 급급하고 있다. 이 책은 불교의 교리를 바탕으로 삶 속에서 죽음을, 죽음 속에서 삶을 발견하는 길을 열어주는 에세이다. 죽음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녹아 있으며, 죽음과 관련된 70여 장의 컬러 불화도 실려 있어 이해의 폭을 넓게 해준다. 값 7천5백원.

###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 책방 역시인 집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선방일기	지 허	역시아문
2	만용-허버트에서 화계사까지	현 각	열림원
3	오두막 편지	법 정	이 레
4	티벳 해탈의 서	과도 생배	정신세계사
5	영가천도	우 룡	효 립
6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	달라리라	문 이 당
7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일 타	불교시대사
8	위빠싸나 성자 아란 문	김 열 권	불 광
9	적멸의 즐거움	정 휴	우 리
10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김 현 준	효 립

도서 안내: (02)737-0695

## 우주는 무엇이며 나는 누구인가?

## 그 해답을 찾아 떠나는 명상 여행

The Royal Song of Saraha

### 그대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II

오소 라즈니쉬 강의 이경숙 옮김 전2권 각권 값 10,000원

India My Love

### 내 사랑 인디아

오소 라즈니쉬 강의 손민규 옮김 값 8,000원

Tantra Vision

### 탄트라 秘典 I-II-III-IV

오소 라즈니쉬 강의 이연화 옮김 전4권 각권 값 10,000원

**명상은 삶속에 존재한다. 그대가 누구이건 그냥 존재하라. 삶이 그대를 통하여 흐르게 하라!**

왕을 위한 사라하의 노래, 이 40편의 노래들이 그대 가슴에 40송이 꽃으로 피어나길 희망한다. 그대를 꽃 피울 가장 위대한 가치는 자연스러움이다. 이것이 진리의 깨달음이며, 탄트라의 메시지다!

**빛나는 우화들은 크나큰 기쁨을 안겨 준다. 이 책을 천천히 읽어라. 사랑으로!**

인도는 우리의 내밀한 공간이다. 마르지 않는 지혜의 샘물, 오소 라즈니쉬가 보내는 초대장, 우리는 인도로 들어가 인도와 하나가 되고, 숨어 있는 꽃과 같은 스승을 만난다!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112가지 수행법!**

이 책의 원전은 <비그나나 바이라바 탄트라>로, 옛 선사들의 지혜, 성인들의 삶을 통해 얻어진 명상 방법들로 이루어져 있다. 오천 년전 시바가 그의 연인 데비에게 전수한 것들이다.

21세기를 사는 지혜의 서

- 01. 탄트라 秘典 I
- 02. 탄트라 秘典 II
- 03. 탄트라 秘典 III
- 04. 탄트라 秘典 IV
- 05. 법구경 I
- 06. 법구경 II
- 07. 금강경
- 08. 반야심경
- 09. 탄트라, 다윈의 깨달음
- 10. 김두도
- 11. 신심명
- 12. 허안 연꽃담(대서 강연)
- 13.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
- 14.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I
- 15. 韓, 빈 거울에 담긴 노래 | 마조
- 16. 마음을 버려라 | 임제
- 17. 오직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있어 뿐 | 조주
- 18. 명 빈 가슴을 넘어서 | 남전
- 19. 법의 연꽃 | 이규
- 20. 韓의 최고봉 | 백경과 대주
- 21. 내 사랑 인디아
- 22. 소중한 비밀 | 캐비르 강론
- 23. 명상, 처음이자 마지막 자유
- 24. 서양의 붓다 | 헤라클레이토스 강론

★ 책의 값은 출판권이 없습니다.  
★ 책 제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mail, taelpub@chollian.net  
tel\_927-2831-4 fax\_924-3236

**래임출판사**  
래임출판사